

#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협력

전주세계소리축제-전주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 소리축제 공동 운영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전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최철)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지난 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예술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중 팔복예술공장에서 공동 개최하는 어린이 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어린이 소리축제 공동 기획과 운영을 비롯해 남부시장 백년시장 기획·운영,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인 '소리 NEXT'와 '전주예술산장'의 유통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양 기관은 축제와 지역 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과 활동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운영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철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축제 협력을 넘어 지역 문화에

술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전주문화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라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지역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양 기관의 감성을 적극 공유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축제와 지역 문화기관이 단순한 행사 협력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공동 기획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원주문화관광재단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6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6)'과 연계해 운영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숲의 완공 : 원주공예캠핑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숲의 완공 : 원주공예캠핑워크' 성료

원주문화관광재단, 공예·캠핑으로 체험형 관광 가능성 확인

원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6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6)'과 연계해 운영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숲의 완공 : 원주공예캠핑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숲의 완공 : 우리의 공예가 모여, 비로소 숲은 완공됩니다'를 주제로 공예와 자연, 캠핑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달빛 아래, 원주에서의 하룻밤'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원주의 자연 속에서 전시와 체험, 공연, 캠핑을 함께 즐기며 공예와 지역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했다. 특히, 50명 규모의 캠핑 프로그램은 모집

시작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2일간 진행된 야외 행사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과 원주공예인협회 초대전, ESG 공예체험, 플라마켓, 버스킹 공연, 야외시네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원주와 전주를 연계한 XR버스 공예투어를 운영해 참가자들이 두 지역의 공예주간 프로그램에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간 문화관광 연계도 강화했다. 이번 공예주간은 공예를 단순한 체험에서 벗어나 자연·관광·캠핑과 결합한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원주=열재복 기자

## 남원 사직단지 무형유산적 가치 조명

학술대회 개최... 지속 가능한 보전·전승 방안 모색 계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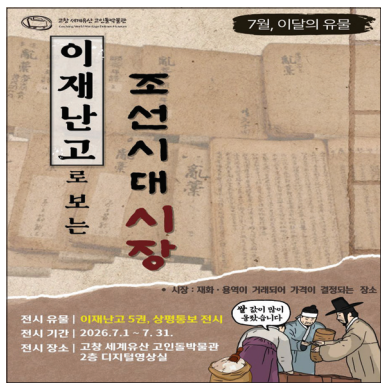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과 국가유산청 2026년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3일, 남원농악전수관에서 남원 사직단지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남원 사직단지는 조선시대 이래 지방 사직제의 전통을 오랜 기간 이어온 무형유산으로, 땅의 신(社神)과 곡식의 신(稷神)에게 제사를 지내 지역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일제강점기 사직제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남원에서는 '기곡단지'라는 이름으로 지방 사직의 맥을 지켜왔으며, 광복 이후에는 사직단지라는 명칭을 회복하고 풍년 기원과 추수 감사의 의미를 담은 춘추제를 이어오고 있다. 남원 사직단지의 역사와 전승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전승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학술대회는 이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여 남원 사직단지의 역사적 정승 맥락과 현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 원장의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남원 사직단지' 기조 강연 △강성복 충청민속문화연구소 소장의 '남원 사직단지 고문서의 양상과 기록유산의 가치' △김지영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객원 연구원의 지방 사직제 재현의 환상과 실상 △오세미나 무형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미래무형유산으로서 남원 사직단지의 의미와 가치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한편 시는 학술대회를 통해 남원 사직단지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보전과 전승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시대 시장' 전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시대 시장'을 주제로 7월 유물 전시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고창에서 태어난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황윤석(1729~1791)이 평생 기록한 '이재난고' 58책 중 5점의 원본을 선보인다.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보관한 '이재난고' 총 47책은 이재 황윤석의 후손 황병무로부터 기탁받은 자료다.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4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국가중요과학자료로 등록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군산시, 역사체험형 콘텐츠 운영

군산시가 3일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이하 식량영단)에서 역사체험형 콘텐츠 '식량영단의 밀서'를 정식 오픈하고 상시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근대건축물을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를 체험하는 몰입형 콘텐츠로 기획됐다. 정식 운영되는 '식량영단의 밀서'는 참가자들이 근대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퍼즐을 풀고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는 미션형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별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 '맛있는 도시 익산' 온라인으로 만나는 '미식 100선'

익산시가 지역 대표 맛집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며 '맛있는 도시 익산' 알리기에 본격 나선다. 시는 지역 외식업 활성화와 미식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익산미식 100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시리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이 여행의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맛집 탐색이 일상화됨에 따라 익산의 우수한 음식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익산 미식문화여행 가이드 수록업소와 향토음식점, 대물탕맛집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익산미식 100선'을 구성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릴스 및 숏폼 영상, '#익산맛집' 해시태그 챌린지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테마형 시리즈도 함께 운영한다. 콘텐츠는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게시할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익산시 미식위생과 공식 블로그 '맛따라'를 비롯해 인스타그램(@iksan\_food\_official),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